

‘ㅎ’ 불규칙용언의 표기 규정에 대한 고찰

양순임*

|| 차례 ||

- I. 머리말
- II. 불규칙 판정 기준
- III. 모음 어미와의 활용형
- IV. 자음 어미와의 활용형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ㅎ’ 불규칙과 관련된 어문규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한글 맞춤법 제18항에서 “원칙에 벗어나면”이라 했으나 원칙에 벗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간과 어미 각각에서 서로 다르다. ‘낳다’도 [나으면]으로, ‘빨강다’도 [빨가면]으로 실현되므로, “어간의 끝 ㅎ이 줄어질 적”만으로 ‘ㅎ’ 불규칙을 규정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좀 더 명시적이고, 어문규정 내에서 상충되지 않고, 학교문법 과도 가능한 연계할 수 있는 규정 또는 해설이 필요하다.

『해설』에서 언급한 “어미 ‘-네’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는 전체 불규칙활용 체계에 주는 부담이 크고, 표준발음법과도 상충되며, 현실발음과의 일치도도 낮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불규칙활용, ‘ㅎ’ 발음 어간, ‘ㅎ’ 불규칙용언,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법, 어문규정, 학교문법, 규범문법.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외래초빙교수

I. 머리말

『1988』¹⁾ 제18항에서는 ‘ㅎ’ 불규칙을 “어간의 끝 ‘ㅎ’이 줄어들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1)과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 (1) ㄱ. 규칙동사는 ‘ㅎ’ 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최현배, 1937/1986: 519, 성낙수, 2008, 나찬연, 2010: 116)
- 나. 규칙동사의 ‘ㅎ’ 탈락은 수의적인 것이지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고영근, 2005)

(1)ㄱ은 어간 말이 ‘ㅎ’인 규칙용언은 모음 어미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지 않고 ‘넣으니까[나흐니까], 넣아서[나하서]’로 실현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표준발음법 제12항에 “ㅎ(ᄒᆞᆫ, ᄒᆞᆯ)”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고, 학교문법의²⁾ ‘ㅎ’ 탈락 규칙은 규칙용언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넣으니까[나흐니까], 넣아서[나하서]’는 학교문법은 물론이고 표준발음법에서도 수용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1988』 제18항 3의 규정은 좀 더 명징하게, 그리고 어문규정 내에서 덜 상충되는 방법으로 다듬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문규정과 학교문법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가능한 학교문법과도 연계된 기술을 해야 규범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³⁾

1) 『1988』은 정부에서 고시한 현행 한글 맞춤법을 가리키는 말로 쓰고, 조선어학회(한글학회)에서 제정한 것도 연도로 표기하겠다.

2) ‘학교문법’은 현행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된 내용, 구체적으로는 제7차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독서와 문법’의 것을 뜻한다. 검인정 교과서인 ‘독서와 문법’은 여러 종이 있으나 대체적인 열개는 국정 교과서인 ‘문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어문규정에 반영된 문법은 규범문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학교문법’은 ‘규범문법’과 공통되는 점점도 있고 구별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으로도 썼고(최형용:

국립국어원 『해설』에서는⁴⁾ ‘ㅎ’ 불규칙용언과 종결어미 ‘-네’가 결합한 표기형을 ‘노라네, 누리네’로 제시하고 어간 말 ‘ㅎ’이 줄었으므로 불규칙이라 했다. 그러나 ‘노랑니?, 노랑나?, 노랑고’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불규칙활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노랑네’와 같은 표기 오류를 양산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세하고 특수한 경우까지 『해설』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또 『해설』의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ㅎ’은 음성학적, 음운론적 특수성 때문에 수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를 어문규정과 관련지어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다.⁵⁾ 그러나 앞서 제기한 의문은 국어교육 현장이나 언중들의 문자 생활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명시적으로 기술될 필요가 있다. 어문규정이나 학교문법은 각각 고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치할 수는 없으나 ‘규범’이라는 공통된 점점의 범위 내에서는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한 어문규정 내부 조항 간에, 어문규정 간에, 어문규정과 표준국어대사전, 어문규정과 학교문법 간에 가능한 상충되지 않는 기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주된 연구 목적은 이러한 관점에서 ‘ㅎ’ 불규칙과 관련된 『1988』의 문제점을 고

2003 등) 구별하기도 했다.(임홍빈: 2000 등).

4) 『1988』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해설은 『해설』로 표시하겠다. 논문 집필 당시 누리집 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01_0402.jsp에 실려 있는 것을 참조했다.

5) 예를 들어 모음 간 /ㅎ/ 탈락은 음성학적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되는 현상이다.(김영송: 1996, 양순암: 1998, 차재은·정명숙·신지영: 2003) 음운 변동에 있어서도 /ㄴㅎ/아서/는 [나아서] 또는 [나:서]로 발음되는데, [나:서]는 /ㅎ/ 탈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음운론적 설명이 어렵다. 또한 국어사적으로도 유성음 사이에서 ‘ㅎ’의 탈락은 지속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다. 체언 어간 말 ‘ㅎ’의 탈락은 ‘ㅍㅍ, ㅍㅍ’이 향가에 함께 등장함으로 보아 고대국어부터 시작된 것이다.(정영호: 2006)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 말음 ‘ㅎ’의 탈락도 마찬가지여서, 18세기 자료에서도 ‘놓-’이 ‘노아, 노으니’로, ‘잃-’이 ‘이러, 이르니’의 형태로 나타난다.(이진호: 2003)

찰하고 수정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Ⅱ. 불규칙 판정 기준

학교문법과 한글 맞춤법의 불규칙활용 분류는 ‘ㅅ, ㅌ, ㄷ, ㅂ, 여, 러’ 불규칙만 일치하고 나머지는 서로 다르다.

(1) 학교문법과 한글 맞춤법의 불규칙활용 분류

불규칙 유형	학교문법	한글 맞춤법	예
어간		ㄷ	사니 / 살다
	ㅅ	ㅅ	그어 / 굿다
		ㅎ	하야니 / 하얏다
	우	ㅌ	퍼 / 푸다
		ㅌ	떠 / 뜨다
	ㄷ	ㄷ	걸어 / 걷다
	ㅂ	ㅂ	기워 / 깎다
	르		갈라 / 가르다
어미	여	여	하여 / 하다
	러	러	이르러 / 이르다
	너라		오너라 / 오다
	오		다오 / 달다
어간과 어미	ㅎ		하에서 / 하얏다
		르	갈라 / 가르다

학교문법에 비해⁶⁾, 한글 맞춤법에서 규칙과 불규칙을 가르는 기준은 다

6) 학교문법에서는 ‘접었다, 씻어요, 잡았다’처럼 어간과 어미의 기본형태가 유지되거나, 달라지더라도 변동규칙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활용이라 한다. 이에 비해, 불규칙 용언은 ‘추웠다, 이어요, 하였다’처럼 어간이나 어미의 형

소 모호하다. 『1933』에는 第4節 變格 用言 第10項은 “다음과 같은 變格 用言을 認定하고, 각각 그 特有한 變則을 좇아서 語幹과 語尾가 變함을 認定하고 變한대로 적는다.”로 되어 있는데, 이후 규정도 용어를 토박이말로 바꾸거나, 표기를 한글로 바꾸거나, 토를 바꾸는 정도의 작은 표현 차이를 제외하면 『1988』까지 비슷한 진술이 반복되었다. (2)ㄱ은 『1988』의 불규칙용언에 대한 규정이고, (2)ㄴ은 이에 대한 『해설』이다.

(2) ㄱ. 『1988』 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ㄴ. 『해설』: 어휘적 형태소인 어간이 문법적 형태소인 어미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활용의 체계에는 (1) 어간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 어미만이 교체된다(변화한다). (2) 어미는 모든 어간에 공통되는 형식으로 결합한다.라는 원칙이 있다. ‘원칙에 벗어나면’이란, 이 두 가지 조건에 맞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니, ① 어미가 예외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것 ②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고, 어미도 예외적인 형태로 결합하는 것 등, 두 가지 형식을 들 수 있다. (밑줄은 필자)

『1988』에서는 불규칙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원칙에 벗어나면’이라 하고, 『해설』에서는 ‘어미가 예외적인 형태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고’로 나누어 풀이했다. ‘원칙에 벗어나면’, ‘어미가 예외적인 형태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고’는 언중들을 향한 설명으로도, 국어교육 현장에서 쓰기에도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고’는 ‘어간의 모양이 사전 표제어와⁷⁾ 달라진 형

태가 교체되는데, 음운론적, 형태론적으로 조건 지어진 것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변동규칙으로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형태론적 개념인 ‘기본형태’보다는 ‘-다’와 결합된 사전 표제어형의 의미로 기본형이라 한다면, 언중들에게는 더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 본다.

태'로 표현하는 것이 언중들의 이해를 돕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문법에서 'ㄹ' 불규칙과 'ㅡ' 불규칙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ㄹ' 탈락과 'ㅡ' 탈락을 공식적인 변동규칙으로 보았고, 또한 상응하는 규칙용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글 맞춤법에서 'ㄹ' 불규칙을 설정한 까닭은 '산, 사시다, 살수록, 삽니다, 사네'를 '살고, 살다가'와 견주었을 때 어간 '살-이'가 '사-'로 교체되기 때문일 것이다. 'ㅡ' 불규칙을 설정한 까닭도 '바빠, 바빴다'를 '바쁘다, 바쁘고'와 견주었을 때 어간 '바쁘-'가 '바빠-'으로 교체되기 때문일 것이다.⁸⁾

학교문법에서 '추워서(춥다)'를 불규칙으로 보는 것은 규칙활용하는 다른 용언 '접어서(접다)'와 견주었기 때문임에 비해, 『1988』에서 '사는데(살다)'를 불규칙하다고 본 것은 동일 동사의 활용형 '살고(살다)'와 견주었기 때문이다. 즉 『1988』에서 어간은 변동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든 없든, 기본 형태(대표형태, 원형, 사전의 표제어형)로 표기할 수 없으면 불규칙으로 판정한 것이다.

'어미가 예외적인 형태'가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어미 첫소리가 '아/-어/-Ø', '으/-Ø'로 교체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음 어미이다.⁹⁾ 어미는 교체 조건이 음운론적이어서 변동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활용으로 보았다는 뜻이다. '아/-어/-Ø', '으/-Ø'로 교체되는 경우 불규칙으로 보지 않으면서 표기에 이형태를 직접 반영한다.¹⁰⁾ 이로 보아 어미에는 '원칙

8) '바쁘, 바쁘니까'처럼 '으'가 있는 어미와 결합할 때도 'ㅡ'가 탈락하는데, 이때 탈락한 것은 '쓰어서'가 '씨서'로 되는 것으로 보아 어간 모음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표기상으로는 어미 모음 'ㅡ'가 나타난다. 그래서 'ㅡ' 불규칙의 예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보아도 『1988』에서 불규칙 판정 기준은 표기형임을 알 수 있다.

9) 논의의 편의상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자음 어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모음 어미'라 부르겠다.

10) '가고, 먹고, 좋고'에서 어미 [고~꼬~코]의 교체와 '먹었다, 막았다, 잤다'에서 [아~어~Ø]의 교체는 조건이 음운론적이고,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은 같다. 그러나 이형태를 표기에 반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르는 기준과 이에

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¹¹⁾

‘-아/-어/-Ø’의 교체형을 직접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3)으로 규정하고 있다.¹²⁾

(3) ㄱ. 『1988』 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ㅑ’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다.

ㄴ. 『1988』 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러나 ‘-으니까/-니까’류의 교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또 한글 맞춤법에서 ‘-습니다/-니다’의 교체에 대해서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데, ‘-읍니다/-니다’로 표기한 『1988』을 제외한 이전 규정에서는 이를 ‘-으니까/-니까’와 같은 류의 교체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988』에서는 ‘-읍니다’를 ‘-습니다’로 표기하므로 ‘-으니까/-니까’류뿐 아니라 ‘-

대한 규정 문제는 한글 맞춤법에서 총칙 제1항과 관련되는 핵심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허웅(1988), 엄태수(2001), 김정남(2008), 최형용(2009), 정희창(2011)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11) 제16항에 대한 『해설』에서 ‘-아/-어’의 교체는 “어미의 모음이 어간의 모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제약(制約)받는 현상”이라 했다. 여기서 ‘자동적으로 제약 받는’은 자동적 교체(automatic alternation)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자동적 교체는 어떤 음운규칙이 그 언어의 모든 층위에 적용되는 것이다.’(고영근: 2005), ‘자동적 교체는 이형태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정희창: 2011)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아/-어’의 교체는 자동적 교체가 아니다. 이처럼 ‘자동적’이라는 용어가 중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12) (3)의 규정에 의해 ‘하여서, 하였다(하다)’, ‘이르러서, 이르렀다(이르다)’와 같은 활용은 각각 어미가 불규칙한 ‘여, 러’ 불규칙으로, ‘갈라서, 갈랐다(가르다)’는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한 ‘르’ 불규칙으로 처리했다. 그렇다면 어미 ‘-너라’와 ‘-오’도 불규칙으로 보아야 하는데 제외되었다. 이 두 어미는 특정한 어휘와만 결합하고, ‘-오’도 불완전동사나 보충법으로 처리하는 등 불규칙활용의 테두리에 넣기 곤란한 점도 있다.

습니다/-니니다'의 교체에 대해서도 (4)와 같은 내용이 규정 또는 『해설』에 첨가되어야 (3)과 균형 잡힌 규정이 될 것이라 본다.

- (4) 어간의 끝소리가 ‘ㄹ’ 이외의 자음일 때는 ‘-으니까, -은, -을’ 따위로 적고, 모음이거나 ‘ㄹ’일 때는 ‘으’ 없이 ‘-니까, -ㄴ, -ㄹ’로 적는다.¹³⁾ ‘-습니다/-니니다, -습니까/-니니까’도 마찬가지다.

Ⅲ. 모음 어미와의 활용형

1. ‘으’와 결합할 때

(1)은 ‘ㅎ’ 규칙용언과 불규칙용언이 ‘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

- (1) ㄱ. [나으니까](낳+으니까), [나으면], [나은], [나을].
 ㄴ. [빨가니까](빨강+으니까), [빨가면], [빨간], [빨갈].

규칙용언 ‘낳다’도 [나으니까]로, 불규칙용언 ‘빨강다’도 [빨가니까]로 실현되므로, ‘어간의 끝 ㅎ이 줄어들 적’만으로 ‘ㅎ’ 불규칙을 규정하기는 어렵다.¹⁴⁾ /빨강+으니까/류와 /낳+으니까/류의 차이는 ‘ㅎ’ 탈락에 있다기보

13) 『1980』 제16항 ‘다만’에서 ‘씨름이 줄기의 끝소리에 따라 그 꼴을 바꿀 적에는 바뀐 대로 적는다.’고 하고, ‘-으며/-며’와 같은 예를 들어 ‘으’의 유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어간 말음이 ‘ㅅ’일 때는 ‘ㅅ’이 줄든지 줄지 않든지 ‘셋다: 셋으니’, ‘잇다: 이으니’처럼 ‘으’가 실현된다. 그러므로 ‘ㅅ’ 불규칙활용에서는 ‘으’가 줄지 않는다는 [붙임]이 필요할 것이다.

14) 실질 형태소의 말음은 ‘앞에[아페], 있어요[이쎄요]’처럼 모음 어미 앞에서 연음될 때 드러나는데, ‘ㅎ’ 말음은 모음 어미 앞에서 ‘ㅎ’ 음이 드러나서 기본형태로 삼거나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낳다가/[나타가]와 같이 자음 어미 앞에서 나타나는 유기음화

다, 어미 모음 ‘으’ 탈락의 불규칙성에 있다.

‘-으X’계의¹⁵⁾ 기저구조에 대해서는 ‘으 탈락설’, ‘으 삽입설’, ‘쌍형설’ 등이 제기되었으나 각각 나름의 문제를 갖고 있다.(신승용: 1999, 박종희: 2004) 본고에서는 어문규정에 대한 검토라는 점에서 ‘으’ 탈락 규칙을 설정한 학교 문법의 견해를 따른다. ‘ 좋네~좋으네, 좋니~좋으니, 옳냐~옳으냐, 알고~야트고’처럼 자유 변이되는 경우와는 달리 ‘-으니까’와 ‘-니까’의 교체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고, -지’처럼 어간 말음과 관계없이 ‘으’가 실현되지 않는 어미가 있다는 점에서 ‘으’ 탈락설은 유효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으니까’류와 ‘-니까’류 각각을 표제어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최현배(1937/1986: 167)의 ‘두루 씨끝’에 해당하는 ‘-고, -지’와 같이 ‘으’가 없는 어미와의 변별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또한 ‘으’ 탈락을 변동규칙으로 보고 있는 학교문법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으니까, 지으면’처럼 ‘ㅅ’ 불규칙활용에서 탈락한 어간 말 자음은 ‘으’ 탈락을 막는다. 이는 기저형에 있던 자음은 표면에서 탈락하더라도 음운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ㅎ’ 불규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간 말 ‘ㅎ’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는 점은 모두 같은데, ‘낳다’류는 ‘으’가 실현되고 ‘빨갓다’류는 ‘으’가 탈락하기 때문이다.¹⁶⁾ 불규칙용언의 근본적 발생 원인은

를 표기에 반영하고 설명하기 위한 가상적 기본형태이고 표기형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ㅎ’ 말음 어간은 모두 불규칙일 수밖에 없다.

15) 형용사와 결합하는 ‘-으X’계 어미로는 연결어미 ‘-(으)니(까), -(으)며, -(으)면, -(으)르지언정, -(으)르마정, -(으)므로, -(으)는데’ 전성어미 ‘-(으)ㄴ, -(으)ㄹ, -(으)ㄴ, 종결어미 ‘-(으)오’ 등이 있다.

16) 입말에서는 ‘-’가 실현되지 않고 ‘쌍은[썩:], 쌍으니[싸:니], 쌍으면[싸:면]’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장모음으로 발음되지 [썩, 싸니, 싸면]으로 나는 것은 아니다. 동일 모음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어미 ‘ㅏ, ㅑ’의 탈락도 막는데, /낳아서/가 [나아서, 나:서]로는 되지만 [나서]는 안 되고, /쌍아서/가 [싸아서, 싸:서]는 되어도 [싸서]로는

대부분 통시적인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¹⁷⁾ 그러나 어미 모음 ‘으’ 탈락 여부에는 공시적인 원인도 부분적으로 관여하리라 본다.

(2)는 규칙용언과 ‘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활용형을 보인 것이다. ‘ㅎ’ 말음을 가진 규칙용언은 동사로는 ‘낳다, 달다, 딸다, 뺄다, 썰다, 넣다, 놓다, 찢다’, 형용사로는 ‘좋다’가 전부이다.

(2) 어미 모음 ‘으’의 실현 양상

ㄱ. ‘으’ 보존형		ㄴ. ‘으’ 탈락형	
[나으니까]	/낳+으니까/	[나니까]	/날+으니까/
[다은]	/달+은/	[단]	/달+은/
[따으니]	/딸+으니/	[따니]	/따+으니/
[빼은]	/뺄+은/	[뺀]	/뺄+은/
[썰은]	/썰+은/	[썰]	/썰+은/
[너은]	/넣+은/	[넌]	/널+은/
[노은]	/놓+은/	[논]	/놀+은/
[찌으면]	/찌+으면/	[찌면]	/찌+으면/
[조은]	/좋+은/	[존]	/줄+은/

‘ㅎ’ 말음을 가진 규칙용언은 모두 1음절 어간이다.¹⁸⁾ 규칙용언에 만약 ‘으’ 탈락 규칙이 적용되면 모두 (2)ㄴ처럼 모음이나 ‘ㄹ’로 끝난 어간 활용형과 같아진다. ‘으’가 탈락하면 동음이의어가 발생하는 것이 규칙용언에서

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17) 통시적 설명으로도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ㅎ’ 불규칙용언의 어간 말 음절이 ‘ㅎ’였기 때문에 풀이되지만, ‘으’ 탈락은 어간 말 음절이 ‘ㅎ’에서 온 것이라 해서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18) ‘ㅎ’ 말음 동사 어간은 ‘쳐넣다’처럼 접두사가 붙거나, ‘끝닿다’처럼 명사가 붙거나, ‘잡아넣다’처럼 동사가 붙어서 복합어를 이루기도 한다. 또 ‘썰다, 놓다, 넣다’는 보조동사로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모두 왼쪽으로 확장된 형태이므로 단일어일 때와 활용양상이 같다.

‘으’가 잔존하는 주요한 공시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¹⁹⁾ 물론 동음이의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규칙용언에서 ‘으’가 잔존하는 이유를 동음이의어 회피로 보는 설명의 의의는 한정적이다.

‘ㅎ’ 규칙용언에서 ‘으’가 탈락하지 않는 공시적 동인이 동음이의어 회피에 있다면, ‘으’가 탈락하는 ‘ㅎ’ 불규칙용언에서는 이로 인해 동음이의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3), (4)는 ‘ㅎ’ 불규칙용언인데,²⁰⁾ 표준국어대사전에서 (3)은 접미사가 없는 형태로,²¹⁾ (4)는 접미사 ‘-다랴다’나 이것의 축약형인 ‘-달다’가 붙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 (3) ㄱ. 파랴다(새파랴다, 감파랴다) 노랴다(새노랴다, 감노랴다), 뇌랴다
/ 동그랴다(길동그랴다), 뚱그랴다, 사느랴다, 씨느랴다.
- ㄴ. 이랴다, 그랴다, 요랴다, 조랴다, 고랴다, 저랴다, 어랴다.
- ㄷ. 뉘랴다, 누랴다(싯누랴다, 검누랴다), 퍼랴다(검퍼랴다, 시퍼랴다)
/ 씨느랴다, 서느랴다, 뚱그랴다, 동그랴다, 길동그랴다, 휘둥그랴다, 덩그랴다, 덩덩그랴다, 쌍그랴다.
- ㄹ. 가랴다, 까랴다(새까랴다) / 새카랴다.
- ㄴ. 거랴다, 꺼랴다(시꺼랴다), 시커랴다.
- ㄷ. 보랴다, 뽀랴다, 하랴다(새하랴다).
- ㄴ. 뿌랴다, 부랴다, 허랴다(시허랴다).
- (4) ㄱ. 머다랴다, 커다랴다, 되다랴다, 가느다랴다, 기다랴다, 굵다랴다, 잔다랴다, 두껍다랴다, 곱다랴다, 좁다랴다, 높다랴다, 깊다랴다, 짙다랴다, 알따랴다, 널따랴다.

19) 송창선(2010)에서는 ‘르’ 불규칙용언의 발생도 동음이의어의 발생을 막기 위함으로 보았다.

20) (3)ㄴ의 예와 ‘아무랴다, 기다랴다, 자그랴다, 조그랴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하다’형 본말과 준말의 관계로 처리하고 있는데, 어간 말이 ‘ㅎ’이면 준말이든 아니든 활용 양상은 ‘ㅎ’ 불규칙용언과 동일하다.

21) 구분관(2009)는 (3)에 접미사 ‘-얼/양-’을 상정하였다.

ㄴ. 커당다, 기당다, 잔당다, 곱당다.

‘ㅎ’ 불규칙용언은 ‘으’가 탈락되어도 다른 용언과 동음이의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경제 원칙에 따라 ‘으’ 탈락 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ㅎ’ 불규칙용언은 규칙용언과 달리 1음절 어간은 없고 모두 어간이 2음절 이상이다.²²⁾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어간의 끝 ‘ㅎ’이 줄어들 적”은 “2음절 이상 어간의 끝 ‘ㅎ’과 어미 ‘으’가 함께 줄어들 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아/어’와 결합할 때

(5)는 『1933』부터 『1988』까지의 규정에 언급된 ‘ㅎ’ 불규칙활용의 용례를 간추린 것이다.

(5) ‘ㅎ’ 불규칙 관련 규정과 용례 변화

	불규칙	이형태	용례	
			___ /-/	___ /t, ɬ/
1933	어간	‘ㅎ’ 탈락	하야니, 하얀, 하야면	
1937			하야니, 하얀, 하야면 커다라니, 커다란, 커다라면	
1940			"	
1946			"	
1948			하야니, 하얀, 하야면, 하얄 커다라니, 커다란, 커다라면, 커다랄	
1958			"	

22) 조선말규범집 제10항 3의 [붙임]에서는 “《ㅎ》받침으로 끝난 본래의 말줄기가 두 소리마디이상으로 된 형용사, 동사는 모두 여기에 속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ㅎ’ 말음 어간 중 2음절 이상일 경우 활용이 불규칙적임을 밝힌 것이다.

1980	어간 어간+어미	‘ㅎ’ 탈락 ‘ㄱ, ㅋ’	하야니, 하얏, 하야면, 하얏니다	까매, 노래, 퍼래, 하애, 그래
1988	어간	‘ㅎ’ 탈락	하야니, 하얏, 하야면, 하야오	

‘ㅎ’ 불규칙의 용례는 모두 ‘-으니, -은, -으면, -을, -으오’처럼 ‘으’를 가진 어미와 결합한 것들이다.²³⁾ 『1988』도 이와 같은데, 다만 하오체 종결 어미 ‘-으오’와의 활용형이 첨가된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1980』만은 “줄기의 끝소리 ‘ㅎ’이 고름소리 ‘으’ 앞에서 줄거나, 씨끝 ‘아/어’ 앞에서 줄 적에 줄기의 끝 홀소리 ‘ㅏ, ㅑ, ㅓ’와 씨끝이 한 소리마디로 다시 줄어서 ‘ㄱ, ㅋ’로 바뀔 적”이라 하여 ‘-아/-어’와의 활용형도 포함하였다. 『조선말 규범집』에도 ‘벌개서, 커다래서’와 같은 용례가 포함되어 있다.

어미 ‘-아/-어’와 결합한 ‘노래, 노래지다’와 같은 예는 『해설』에서만 다루었다.²⁴⁾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1988』에서 어간은 기본형태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 불규칙으로 보았고, 어미는 기본형태로 표기할 수 없어도 교체 조건이 음운론적이면 규칙활용으로 보았다. 학교문법에서 ‘ㅎ’ 불규칙을 어간과 어미가 함께 불규칙한 것으로 분류한 것도 ‘ㅎ’ 탈락 때문이 아니라,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아/-어’가 오면 어간의 일부인 ‘ㅎ’이 없어 지기도 하고 어미도 변하기” 때문이다.²⁵⁾ 이런 점에서, 『1988』에도 ‘-아/-어’ 앞의 활용형에 대한 것을 『해설』에서가 아니라 본 규정에 두는 것이 균형에 맞다고 본다.

그런데, ‘/과랴+아/[과래]’와 같은 현상은 ‘ㅎ’ 말음 어간 뿐 아니라, 어간 말에 ‘ㅎ’이 없는 지시동사 ‘그러다’류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6)은 ‘ㅎ’ 불규

23) 『1980』에서 ‘하얏니다’를 ‘ㅎ’ 불규칙 용례로 제시한 것도 상대높임 선어말어미의 형태를 ‘-읍니-/ㄷ니’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24) 형용사 어간과 결합 가능한 ‘어’계 어미로는 ‘-아/-어, -아서/-어서, -아야/-어야, -았-/엇-, -아요/-어요’ 등이 있다.

25) 『고등학교 문법-교사용 지도서』(2002: 140)

칙이라 부르기 곤란한 면이 있다.²⁶⁾

- (6) ㄱ. 파랳다: 파래, 파래서, 파래요, 파랬다, 파래지다.
- ㄴ. 그렇다: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랬다.
- ㄷ. 그러다: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그랬다.

‘ㅎ’ 불규칙용언은 모두 어간 말 모음이 ‘ㅏ’ 또는 ‘ㅑ’이다. 그래서 만약 규칙활용을 한다면 ‘파라’, ‘퍼리’처럼 동일 모음이 중복되는데, 이것이 공시적으로는 /파랳+아/가 [파라]가 되지 않고 [파래]로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류와 ‘그러다’류가 ‘-아/-어’ 어미와 결합할 때 활용형이 같아지는 것도 모음 사이에서 ‘ㅎ’이 탈락하면 둘 다 ‘ㅏ||ㅑ’의 연쇄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일 모음의 연쇄를 피하는 현상은 경향성이지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설명의 의의도 한정적이다.

‘하다’ 동사의 활용형이 ‘해, 해서, 해요’로 되는 것도 공시적으로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²⁷⁾ ‘하여’를 ‘여’ 불규칙이라 부르고, 『1988』 34항에서 ‘해’를 ‘하여’의 준말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종결형으로는 ‘공부해’류만 쓰이고 ‘공부하여’와 같은 꼴은 아예 쓰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공시적으로는 ‘공부해’를 ‘공부하여’와 관련짓기 어려운 점이 있다.

26) 한글 맞춤법에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한 것은 ‘ㄹ’ 불규칙인데, 이는 어간 말 음절을 딴 것이다. 그러나 (6)과 같은 활용을 보이는 어간 말 음절은 ‘랳/ړ, 망/명, 양/영, 당, 리, 쩌’로 다양하다. ‘랳/ړ, 망/명, 양/영, 당’에서 ‘양/영’을 공통 요소로 뽑는 다 해도 지시동사 어간 말 음절 ‘리, 쩌’가 있다. 현상으로 보아서는 ‘애’ 불규칙이라 부를 만하지만 어문규정에 새로운 불규칙을 설정하느니보다는 불임을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참고로 배주채(2003: 168)에서는 ‘그러다, 어쩌다’ 등을 포함한 지시동사는 어간 말음이 ‘ㅏ’라는 점에서 ‘ㅏ 불규칙용언’이라 불렀다. 그러나 여기에는 ‘빨강다, 그렇다’류는 포함하지 않았다.

27) /파랳아/가 [파래]로 되는 것처럼 /가득하아/가 [가득해]로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ㅏ’가 실현되는 용언의 15세기 형태가 ‘하야하다, 그러하다, 그리하다’처럼 ‘X하다’의 형태였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7)의 『해설』에 따르면 ‘빨개서/빨게서, 노랬다/누랬다, 하애포/허애포’로 어간 말 음절 모음이 ‘ㅏ’이면 활용형을 ‘ㅈ’로, ‘ㅑ’이면 ‘ㅊ’로 구별 표기해야 한다.

(7) 『해설』: 다만,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는 ‘-애/-에’로 나타난다. 노래, 노래지다, 허예, 허예지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적어도 통시적으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지시형용사 ‘그렇다’류와 지시동사 ‘그러다’류는 어간 말 모음이 ‘ㅑ’이지만 활용형은 ‘그래, 이래, 어때, 아무래도’처럼 모두 ‘ㅈ’로 표기한다. 따라서 ‘빨개’와 ‘빨게’에서 ‘ㅈ’와 ‘ㅊ’로 구별 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모두 ‘ㅈ’로 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1980』에서도 ‘퍼래’와 같은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IV. 자음 어미와의 활용형

무성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될 때는²⁸⁾ ‘ㅎ’ 발음을 가진 모든 용언이 규칙적인 활용을 한다. 기음의 짝이 있는 ‘ㄷ, ㄱ, ㅈ’과 결합하면 유기음화하고, ‘ㅅ’과 결합하면 경음화한다는 점에서 ‘좋다, 빨강다, 그렇다’는 동일하다.

(1) ㄱ. 좋다, 좋고, 좋지, 좋습니다, 좋소.

나. 빨강다, 빨강고, 빨강지, 빨강습니다, 빨강소.

28) 형용사와 결합 가능한 무성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로는 ‘-소, -습니-, -고, -구나, -구료, -거든, -거나, -기, -게, -다, -더라도, -든지, -듯이, -도록, -디, -지, -지마는’ 등이 있다.

ㄷ.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렇소.

‘그러고, 그러든지, 그러지, 그러습니다, 그러소’는 ‘ㅎ’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불규칙용언이라서가 아니라, 이들의 기본형이 형용사 ‘그렇다’가 아니라 동사 ‘그러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성 자음 어미와의 활용형이다. 형용사와 결합하는 유성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로는 ‘-네, -니, -냐’²⁹⁾가 있다. 종결어미 ‘-네’는 ‘으’가 없는 어미여서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든, 모음으로 끝나든, ‘-으네’의 꼴은 없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지금까지의 규정에서 ‘ㅎ’ 불규칙과 관련하여 한 번도 종결어미 ‘-네’와의 활용형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규정에는 없지만 (2)의 『해설』에 따르면 ‘노랑네, 누렁네, 허영네’가 아니라 ‘노라네, 누러네, 허여네’로 발음하고 써야 한다.

(2) 『해설』: 형용사의 어간 끝 받침 ‘ㅎ’이 어미 ‘-네’나 모음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 준 대로 적는다.

노라네, 허여네. (밑줄은 필자)

한글 맞춤법에서 자음 어미 앞에서 불규칙활용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³⁰⁾ 무성 자음 어미뿐 아니라 유성 자음 어미와의 결합에서도 ‘노랑니?’

29) 의문 종결어미 ‘-냐’도 있는데, 이는 주로 동사와 결합한다.

30) 다만 ‘ㄹ’ 불규칙은 “어간 끝 받침 ‘ㄹ’이 어미의 첫소리 ‘ㄴ, ㄷ, ㅅ’ 및 ‘-(으)오, -(으)ㄹ’ 앞에서 줄어지는 경우”에 나타나는데, 어미의 첫소리 ‘ㄴ, ㄷ, ㅅ’은 음운론적, 형태론적으로 전혀 동질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한 자연류 앞에서 나타나는 다른 어간 불규칙활용과는 구별된다.

『고등학교 문법』에도 자음 어미 앞에서 불규칙활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판된 『독서와 문법 II』(2011: 59)에는 (2)의 『해설』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규범문법에서 국립국어원의 언급은 권위를 지닌다.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특수한 예일수록 규범 교육에서는 더 많이 인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랑나?’처럼 불규칙활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노랑네’는 『해설』에 따르면 표기 오류이지만, 이는 이유 있는 오류임을 알 수 있다.

[노라네, 하야네]는 받침 ‘ㅎ’의 발음에 대한 표준발음법 규정과도 상충된다. (3)은 ‘ㅎ’ 발음을 가진 모든 용언에 적용되는 규정이다.³¹⁾ 학교문법도 이에 따른다.

(3) 표준발음법 12항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놓는[논는], 쌓네[쥌네]

/노랑네, 하얏네/는 실제발음도 [노라네, 하야네], [노란네, 하얀네]로 유동적이다. 발음이 확정적으로 [노라네]로만 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노라네]형을 표준발음으로 삼아서 자음 어미 앞에서도 불규칙활용이 나타나는 특수한 예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표기 오류를 양산해 내기 쉬운 이런 특수한 『해설』 내용이 존재 의의를 지니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실제발음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어문규정 전체 틀 안에서도 상충되고 학교문법과도 상충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다만 ‘노라네’와는 달리, ‘그러네’는 문제가 없다. ‘그러네’는 형용사 ‘그렇다’의 활용형이 아니라, 동사 ‘그러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이다. (4)처럼 유성 자음 어미와의 활용형도 ‘ㅎ’ 발음이 없는 지시동사와 ‘ㅎ’ 발음이 있는

비판적 시각도 여전히 필요하다.

참고로 최현배(1986/1937: 519)에서도 ‘ㄴ으로 비롯한 씨끝 앞에서는 그 ㅎ이 줄어지 나니’라고 하고 ‘가파네, 발가네’를 예로 들고 있는데, (2)의 『해설』은 여기에 기대어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31) 표준발음법에 제12항 예에 ‘ㅎ’ 불규칙용언은 들지 않았다. 그러나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규칙, 불규칙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시형용사가 서로 다르다.

(4) ㄱ. 그러네요[그러네요], 그러나, 이렇고, 그러지.

ㄴ. 그렇네요[그런네요], 그렇나, 이렇고, 그렇지.

반면에 모음 어미와의 활용형은 ‘그렇다’류와 ‘그러다’류가 같다. (5) ㄱ처럼 ‘으’ 앞에서 어간 말 ‘ㅎ’도 탈락하고, 어미 모음 ‘으’도 탈락하여 ‘그러니까’만 가능하고 ‘그렇니까[그런니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5) ㄴ처럼 ‘-아/-어’ 어미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고 ‘애’로 나타난다는 점도 같다.

(5) ㄱ. 그러니까(←그렇+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그런.

ㄴ. 그래(←그렇+어, 그러+어), 그래요, 그랬다.

의문형 종결어미 ‘-니’, ‘-냐’도 ‘으’가 없다는(이유기: 2005) 점에서 ‘-네’와 같다.³²⁾ ‘-니, -냐’는 ‘푸르니, 작니’, ‘푸르냐, 작냐’처럼 어간 말음의 음운론적 조건과 상관없이 ‘으’가 실현되지 않는다. ‘-니, -냐’와의 활용형도 ‘-네’와 마찬가지로 어간 말음 ‘ㅎ’이 탈락하지 않고 ‘ㄴ’으로 받음된다.

(6) ㄱ. 낱니[난니], 쌍[싼니], 념내[넌내], 쫌내[전내].

ㄴ. 빨장니[빨간니], 누렁니[누런니], 허엿내[허연내].

ㄷ. 그렇니[그런니], 요렇니[요런니], 저렇내[저런내].

그런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7)처럼 ‘중으니?’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³³⁾

32)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의 ‘ㅎ’ 불규칙 용례 ‘그러니, 까마니, 동그러니’는 종결어미 ‘-니’가 아니라, 연결어미 ‘-(으)니’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이 밝혀져 있지 않아 언중들의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연결어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용례를 ‘-으니’보다 ‘-으니까’를 드는 것이 좋겠다.

- (7) ㄱ. 아빠보다 엄마가 더 좋으니?, 책이 그렇게 많으니?
 ㄴ. 남자가 그리도 좋으니?, 방이 넓으니?

‘좋으니[조으니], 많으니[마느니]’와 같은 발음도 존재하긴 한다. 심지어 ‘-네’, ‘-고’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으네, -으고’ 형을 올린 적이 없지만 ‘좋네요~좋으네요[조으네(요)]’, ‘알고~알으고[아트고]’와 같은 변이형이 공존한다. 실제발음에는 늘 다양한 변이가 있다. 동일한 환경에서 자유 변이를 보이면서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쪽을 표준발음으로 정하는 것이 표준발음법 총칙에 맞는 결정일 것이다. 따라서 ‘좋네, 좋니?, 좋냐?’, ‘빨강네, 빨강니?, 빨강냐?’로 표기하고 [존네, 존니, 존냐], [빨간네, 빨간니, 빨간냐]를 표준발음으로 삼는 것이 어문규정, 학교문법을 포함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더 합리적이라 본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ㅎ’ 불규칙 규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한글 맞춤법은 규정의 타당성, 정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어문규정, 학교문법과 상충되지 않게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어문규정과 학교문법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한 통합적인 관점 정립과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어간과 어미는 불규칙활용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18

33)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종결어미로 ‘-으니, -으냐’를 표제어로 제시하고, 각각 ‘-니, -냐’와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지지만,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는다고 되어 있다.

항의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은 좀 더 선명하게 표현되거나 해설될 필요가 있다.

제18항의 “어간의 끝 ‘ㅎ’이 줄어들 적”이라는 규정은 표준발음법, 학교문법과도 상충되고, 규칙용언과 불규칙용언의 차이도 명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간의 끝 ‘ㅎ’이 줄어들 적”은 “2음절 이상 어간의 끝 ‘ㅎ’과 어미 ‘으’가 함께 줄어들 적”으로 고쳐 쓰기를 제안했다.

『해설』에서 언급한 “‘ㅎ’이 어미 ‘-네’ 앞에서 줄어드는 경우”는 전체 불규칙활용 체계에 주는 부담이 크고, 표준발음법이나 학교문법의 기술과도 상충되며, 현실발음과의 일치도도 낮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어미 ‘-아/-어’와 결합한 ‘노래지다’와 같은 예는 『해설』에서만 다루었는데 이는 규정으로 옮겨오는 것이 어문규정 전체의 틀에서 봤을 때 균형 잡힌 기술이 된다고 본다.

‘-아/-어/-Ø’의 교체형을 직접 표기에 반영하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만, ‘-으니까/-니까’, ‘-습니다/-니다’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제16항에 부가하기를 제안하였다.

수정안이나 ‘ㅎ’ 불규칙활용의 공시적 발생 원인을 설명한 부분에서는 연구 결과의 의의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어문규정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검증된 연구 결과를 축적하여 훗날 규정 내용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인바 본고는 그 일환으로서의 연구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어문규정은 규범문법의 핵으로서 기술의 타당성,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아울러 교육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어야 참된 권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문법』, (주)두산, 200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고등학교 문법-교사용 지도서』, (주)두산, 2002.
김동수·김영환, 『조선말규범집 조선말레절법 조선민족어 발전 역사연구(영인본)』, 대제각, 1991.
이남호 외 공저,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I』, 비상교육, 2011.
한글학회 편, 『한글 맞춤법 통일안(원본 및 고침판 모음)』, 한글학회, 1958.
한글학회 편, 『한글 맞춤법』, 한글학회, 1980.

[단행본]

- 나찬연, 『한글 맞춤법의 이해(개정2판)』, 도서출판 월인, 2002/2010,
배주채,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2003.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37/1986.
허 웅,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1985/1988.

[논문]

- 고영근, 『형태소의 교체와 형태론의 범위-형태음운론적 교체를 중심으로-』, 『국어학』 46, 국어학회, 2005, pp.19-52.
구본관, 『복합 색채어의 의미-사전의 뜻풀이를 중심으로-』, 『국어학』 55, 국어학회, 2009, pp.173-282.
김영송, 『스침-갈이소리 연구』, 『언어연구』 14, 부산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1996, pp.1-39.
김정남, 『한글맞춤법의 원리-총칙 제1항의 의미 해석을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27, 한국어의미학회, 2008, pp.21-44.
박종희, 『‘-으X’계 활용어미의 음운론적 고찰』, 『한글』 264, 한글학회, 2004, pp.67-94.
성낙수, 『불규칙용언의 학교문법, ‘한글 맞춤법’에 수용된 양상과 기본형태 분석』, 『청람어문교육』 38, 2008, pp. 367-399.
송창선, 『‘르’ 불규칙과 ‘리’ 불규칙의 발생 원인』, 『어문학』 109, 한국어문학회, 2010, pp.123-143.
신승용, 『‘-으X~-X’계 어미의 기저구조』, 『국어학』 34, 국어학회, 1999, pp.3-29.

- 양순임, 「유기음의 氣와 /ㅎ/에 대한 비교 고찰」, 『우리말연구』 8, 우리말학회, 1998, pp.63-83.
- 엄태수,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한 검토」, 『시학과 언어학』 1, 시학과 언어학회, 2001, pp.221-247.
- 이유기, 「현대국어 의문문 종결형식의 구조」, 『한국언어문학』 55, 한국언어문학회, 2005, pp.127-146.
- 이진호, 「국어 ㅎ 말음 어간의 음운론」,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2003, pp.167-195.
- 임홍빈, 「학교 문법, 표준 문법, 규범 문법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생활』 10권 2호, 국립국어원, 2000, pp.5-26.
- 정영호, 「ㅎ말음의 변화와 어간 재구조화」, 『한민족어문학』 109, 한민족어문학회, 2006, pp.35-64.
- 정희창, 「한글 맞춤법의 ‘역사적 표기법’과 교육 내용 구성」, 『문법 교육』 14, 한국문법 교육학회, 2011, pp.99-122.
- 차재은·정명숙·신지영, 「공명음 사이의 /ㅎ/의 실현에 대한 음성, 음운론적 고찰」, 『언어』 28-4, 한국언어학회, 2003, pp.765-783.
- 최형용, 「규범 문법과 학문 문법의 親疎: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11, 한중인문학회, 2003, pp.70-95.
- 최형용,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과 표기의 원리」, 『한중인문학연구』 26, 한중인문학회, 2009, pp.167-183.

Abstract

A Study on the ㅎ Irregular Verbs and the Korean Orthography

Yang, Sun-im

It has long been some confusion related with ‘ㅎ’ irregular regulations. This confusion is hard to just ignore away for illiteracy, which is originated from somewhat imperfect regulations. I examine problems in the orthography of ‘ㅎ’ irregular-verbs. I also made an explain the reason of ‘ㅎ’ irregular conjugation. The main result is as in the following.

I described the criteria of irregular verbs more clearly. The stem of irregular verbs are different from dictionary basic form ‘-다’. The ending alternation of consonants, ‘-아/-어-Ø’, ‘-으/-Ø’ are not be considered irregular. It’s why they can be explained by phonological rules.

‘ㅎ’ irregular have never had an clear explanation before. In this study ‘ㅎ’ irregular is defined as reducing together the final ‘ㅎ’ of stem and the initial ‘으’ of ending. Otherwise ‘으’ is not deleted in ‘ㅎ’ regular verbs. I explained this is to prevent, at least synchronically, from communication disorders by homonym. When it comes to consonant endings, There is no irregular conjugation. It is necessary to add the statement the blending stem final sound ‘-ㅏ/-ㅑ’ and ending ‘-아/-어’ into ‘ㅏ’. ‘그래요’ is the conjugation form of ‘그렇다’ as well as ‘그러다’.

Key words : irregular conjugation, stem final ‘ㅎ’, ‘ㅎ’ irregular verbs, the Korean orthography, the standard pronunciation, school grammar, normative grammar.

양순임

소속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외래초빙교수

주소 : (608-73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동

전화번호 : 010-6313-7177

전자우편 : baromi20@ks.ac.kr

이 논문은 2012년 11월 14일 투고되어
2012년 12월 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12월 11일 게재 확정됨.